

경동맥을 침범한 악성종양에서 선택적 경동맥결찰술

조정일 · 김영모 · 한창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배 경 : 두경부에서 발생한 침윤성 악성종양의 수술을 계획할 때 경동맥의 침윤여부에 대한 술전검사는 경동맥 결찰 후 일어날 수 있는 신경학적 장애를 예방하고 환자의 예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술전 검사로 CT, MRI, Ultrasound, Angiography, Balloon occlusion with EEG, Brain SPECT or Xenon washout 등이 유용하게 이용되어 왔다.

목 적 : 저자들은 경동맥결찰술을 시행한 환자의 후향적 분석을 통해 선택적 경동맥결찰술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최근 1년간 본원에서 시행한 5례의 경동맥결찰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에서 술전에 시행한 CT, MRI, Angiography 소견을 술후 경동맥 병리소견과 비교해 보았으며 술후 발생한 합병증 및 예후를 살펴보았다.

결과 및 결론 : 5례의 경동맥결찰술 후 1례에서 반신마비의 신경학적 증상을 보였다. 술후 병리검사에서는 5례중 3례에서만 악성종양의 경동맥 직접 침윤을 보였다. 5례중 3례에서 술후 3개월 이내 사망하였는데 1례는 종격동 수술에 따른 대동맥 파열로, 2례는 경부 재발로 인해 사망하였다. 즉 술전 검사에서 의심된 악성종양의 경동맥 침윤에 대한 근치적 수술이 환자의 예후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양측 성대마비 환자에 대한 CO₂ 레이저 피열연골 내측부분절제술

최홍식 · 최영준* · 김성국 · 이용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배 경 : 양측 성대마비는 임상적으로 흔하지는 않지만 환자는 심한 호흡곤란 및 애성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치료로 많은 방법이 시도되었으나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지않는 기도확보와 만족할만한 음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수술방법은 많지않다.

목 적 : 양측 성대마비의 수술치료 방법중 CO₂ 레이저를 이용한 피열연골 내측부분절제술의 치료 효과와 고찰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저자들은 양측 성대마비 환자 3명을 대상으로 CO₂ 레이저를 이용한 피열연골 내측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CO₂ 레이저는 continuous 7-watt beam, superpulse mode를 사용하였다. 3명의 환자들의 술전과 술후 증상과 성대부위 단면적을 비교하였고, 1명의 환자에서 술전과 술후 공기역학적 검사결과를 비교하였다. 술전 기관절개를 시행하지않은 1명은 술중 제트 인공호흡기(Jet ventilator)를 사용하였고, 술전 기관절개를 시행한 2명은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다.

결 과 : CO₂ 레이저를 이용한 피열연골 부분절제술 후 3명의 환자 모두에서 호흡곤란이 개선되었고, 성대부위단면적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술전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지않은 1례는 수술중과 수술후에서 기관절개술이 필요하지 않았고, 술전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2례는 술후 발관이 가능하였다. 공기역학적검사를 시행한 1례에서는 발성의 질이 약간 감소하였다.

결 론 : 양측 성대마비의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 CO₂ 레이저를 이용한 피열연골 내측부분절제술은 피열연골 전절제술과 비교하여 술후 흡인과 후외연부 유착을 방지할 수 있고, 수술시간과 술후부종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기관절개술의 필요없이 발성의 질을 보존하면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술식으로 향후 더 많은 수술례를 통하여 객관적인 공기역학적 검사결과가 있어야하겠다.

후두암에 관한 임상적 고찰

권순옥* · 심윤상 · 이용식 · 이국행
원자력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후두암 환자에서 후두전적출술후 삶의 질에 대한 평가

최종욱 · 한승훈* · 주형로 · 정광운 · 최 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배 경 : 후두암은 조기암의 경우 완치율이 높은 반면 진행된 암과 일부의 조기암 에서는 종종 국소, 경부 및 원격전이에 의한 치료실패, 다발암, 방사선치료후의 괴사를 경험하고 있다.

목 적 : 이에 저자들은 본원에서 경험한 치료 후 실패한 원인 및 생존율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1987년 1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만 5년간 원자력 병원을 내원한 환자 중 후두악성종양으로 확진된 218예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후 재발상황, 생존율 등을 분석하였다.

결 과 : 남자 195예, 여자 23예로 50대 및 60대가 76%를 점하였다. 원발병소는 성문상부암이 109예(50%), 성문암이 106예(48%), 성문하부암이 3예(2%)였다. 병기는 제 1기가 33예(15%), 제 2기 46예(21%), 제 3기 54예(25%), 제 4기 85예(39%)였고 성문암은 각 병기가 비슷하게 분포한 반면, 성문상부암은 제 3기 이상이 90예(83%)로 많았다. 초치료는 218예 중 방사선치료만 받은 것이 86예(39%), 수술만 받은 것이 33예 수술후 방사선치료를 추가한 것이 94예(43%)였다. 수술 방법으로는 전적출술이 88예 부분적출술이 39예였다. 전체적으로 101예(48%)에서 초치료실패가 있었고 부위별로 보면 원발부위 실패가 40예(40%), 경부실패 33예(33%), 원격전이 13예(13%), 중복암 10예(10%)등 이었다. 3년 생존율은 성문부 수술우선군에서 제 1기 100%, 제 2기 100%, 제 3기 75%, 제 4기 53% 방사선 우선군에서 제 1기 100%, 제 2기 94.7% 제 3기 100%, 제 4기 67%였고 구제수술예는 16예였다. 성문상부 수술우선군에서는 제 1기 100%, 제 2기 83.4% 제 3기 75%, 제 4기 64.3%였고 방사선 우선군에서는 제 1기 100%, 제 2기 68.2%, 제 3기 28.5%, 제 4기 21.4%였고 방사선 치료실패 후 구제수술은 11예(29%)에서 행해졌다.

결 론 : 조기 병변의 경우 생존율이 85%이상으로 높게 나왔고 수술을 초치료로 받은 환자의 증가와 구제수술의 증가가 생존율을 향상시켰으리라 생각된다.

진행된 후두암에서 후두를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부득이하게 후두 전적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발성장애와 신체적인 변화는 직장이나 가정으로의 정상적인 복귀를 저해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저자들은 후두전적출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삶의 질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치료법의 선택과 올바른 재활방법의 선택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후두전적출술을 시행 받은 350명중 재발 없이 3년이상 경과하고 설문조사가 가능하였던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 114명, 여자 6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60.2세이었다. 술후 발성방법은 기관식도발성이 35례, 식도발성이 67례, 전기후두를 이용한 발성이 14례, 전혀 발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4례이었다. 설문지는 육체적, 정신적 만족도 와 정상적인 사회활동 여부에 관한 15개 항목의 문항으로 작성하여 각 문항마다 점수를 배정하고 총 1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을 삶의 질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후적자에서 건강상태, 노동력 및 일상생활은 비교적 양호한(6.0 이상) 반면 직장생활, 경제적 상태 및 사회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6.0 이하) 나타났다. 특히 술후 직업의 유지 여부와 발성방법에 따라 삶의 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5$), 직업을 유지한 경우와 식도발성법을 사용한 경우에서 양호한 삶의 질을 보였다.

술후 발성장애와 육체적, 정신적인 장애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만 정상적인 직장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고 식도발성을 성공적으로 습득한 경우에는 비교적 양호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음성재활과 함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